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눌린 영혼과 육신이 있는 곳, 거대한 영적 싸움터

복음을 품고 주께서 부르시는 아프리카로

케냐 선교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선교위원회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16박 17일에 걸쳐 아프리카 케냐 선교 정탐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다. 선교위원장 노광현 장로를 비롯하여 이승림 지도 목사 및 박영식 장로, 김광남 장로 등이 동행한 이번 여행은 우리 교회가 케냐와 아프리카 선교에 참여하여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아프리카는 1977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토속종교가 55%, 이슬람교가 32%를 차지했고, 기독교는 고작 14%에 머무른 선교적인 미개척 대륙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불과 13년이 지난 1990년에 이르게 되면 전통종교는 15%로 급감하게 되고, 이슬람교도 27%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기독교는 57%로 급증장하는 놀라운 현상을 보이게 된다. 물론 이 57%에는 21.3%를 차지하는 로마카톨릭이 포함되어 있다(1996년 ACTS에서 거행된 아프리카 선교협의회 자료). 어쨌든 기독교가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케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북부 이슬람, 남부 기독교의 구도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아프리카 중부지역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팽팽한 긴장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가장 격렬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더구나 급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슬람은 엄청난 물질, 인적 자원을 동원하면서 신속하게 남진해 내

려오는 중이며, 동시에 서부 해안도시들을 거점으로 하여서 아프리카 전체를 잠식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냐는 기독교의 힘으로 중부와 서부를 동시에 방어하는 마지막 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힘겹게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아프리카 선교의 중추적인 거점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번 여행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겠다. 여행팀은 이집트와 케냐 두 곳을 방문하면서 케냐의 북부에 있는 로드와 지역과 중서부의 키수무, 나이로비 남부에 있는 맛사이 지역 등 거친 길들을 장시간 옮겨 다녔다. 몇 번에 걸친 교통사고의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로드와 지역에 거주하는 투루카나족과 중부 맛사이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강인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다. 복음의 소문조차 없던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원주민들로 하여금 수시간을 걸어서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고,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은총에 감격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이번 여행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와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아프리카 선교를 숙의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한 선교적 헌신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온 교회가 한 가지로 선교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와 헌신에 힘써야 하겠다.

충성의 언덕을 오르는 일꾼들로

98년도 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권찰 교육

11월 12일 갈릴리홀과 베다니홀에서

1998년도에 임명될 서리집사 및 권찰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충성된 직분자로 세우기 위한 교육 및 면접이 오는 11월 12일에 갈릴리홀과 베다니홀에서 시행된다.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온전한 성전을 세워가려는 이때에, 내년도에 임명받을 서리집사와 권찰들은 빠르게 훈련받아 말은바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의 주제 성구는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이며, 주제 찬송은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이다. 교육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되며, 대상자들은 두 번의 교육 중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교회에서는 1차교육 시에는 여자서리집사 및 권찰 후보자들, 2차 교육 시에는 남자서리집사 후보자들이 교육받기를 권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및 면접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임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권찰후보자들은 교육만 받으면 된다. 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 장소와 강사 등은 아래와 같다.

1차교육 및 면접: 11월 12일(수) 낮 - 여자 서리집사, 권찰 후보자

2차 교육 및 면접: 11월 12일(수) 저녁 - 남자 서리집사 후보자

날짜	구분	시간	과목	장소	강사
11월 12일 (수요일)	여자 서리집사, 권찰 후보	12:40	교회의 봉사와 원리	갈릴리홀	김성관 목사
		13:40	청지기론	갈릴리홀	김희수 목사
		14:40	면접	교육관 307호	
	남자 서리집사 후보	20:10	교회의 봉사와 원리	베다니홀	김성관 목사
		21:00	청지기론	베다니홀	김희수 목사
		21:40	면접	교육관 307호	



임직예배 교회는 10월 30일(목) 오후 7시에 제30대 장로, 제11대 집사 장립 및 제39대 권사 취임 예배를 드렸다.

이번에 장립을 받은 장로는 6명, 집사는 7명, 취임한 권사는 50명으로 이들은 지난 3월 16일 공동의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로 피택되었으며 6개월간의 철저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후 이날 장립 및 취임하게 되었다. 당회장 김성관 목사의 사회와 총회장 신세원 목사를 비롯해 동서울노회의 여러 목사들이 각기 순서를 맡아 시중 엄숙하고 진지한 가운데 예배가 드려졌다. 교회는 이처럼 새로운 일꾼들로 말미암아 더욱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성도들은 이번 임직받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
학습세례식 11월 16일, 성찬식 11월 23일

97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및 성찬식

11월 2일, 9일(주일)에 학습·세례를 위한 교육, 문답
유아세례식은 11월 16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1월 2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국병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자? (김필수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김재철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행준 목사)	교육관 307호		
11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한근수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박경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자?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11월 16일 (주일)	학습세례식	성인 학습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구원을 얻은 자의 즐거움 (1)

(이사야 9:1-7)

본 문에는 과거에 미신을 따르던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흑암이 없는 광명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1절) ‘흑암이 없다’는 말씀은 빛이 비쳐온다는 의미입니다. 전에 미신을 따르면서 육신과 영혼이 흑암에서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 누가 구원의 복을 받겠다고 하십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1절)

전에 미신을 따라가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앗수르에게 침략을 당하여 황무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앗수르는 강한 나라로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점령하여 젊은 남녀들을 모두 죽여 버리고 어린 아기들을 땃들(섬돌)에 매쳐 죽이고 뚝뚝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 가고 재물은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했던 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피가 섞였다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갈릴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종교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의 피에 여러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방인의 종교와 풍속이 섞인 갈릴리 지방은 이방이 아니면서도 이방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갈릴리 지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복을 받아 영광의 빛을 받는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2. 구원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3-5절)

(1) 창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미신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영하는 복입니다.

유다 민족에게 개인주의가 팽창하여 ‘남들이야 집이 없어도 나만은 집을 열 개 스무 개를 짓고 살아야겠다. 남들은 굶어 죽어도 나만은 맛있는 음식을 더 먹어야겠다. 남들은 노동판에서 고생을 해도 나만은 놀면서 살아야겠다’는 극단의 개인주의가 성하여 유다 백성은 죄 위에 죄를 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 만 명이 살던 유대 땅에 열 명만 남고,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던 큰 집에 살 사람이 없어서 텅 빈 집이 되고, 화려하던 성읍이 황무하여 짐승들이 새끼를

치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보아 주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쓸쓸하던 성읍에 언제 어디서 왔는지 만 명, 십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빈 집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 오히려 집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이렇게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2) 추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즉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 생활이 윤택해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던 포도나무들이 질러넘쿨로 덮여졌고 그 밑에는 호랑이가 새끼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심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니 이전과 같이 좋은 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때에는 포도원이 황무한 사막과 같이 되고 가시밭으로 전락했었으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시 복을 주시니 이제는 여호와와 은혜의 동산으로 변하여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3) 승리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돈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동족간에도 약자의 재물을 온갖 나쁜 방법으로 빼앗는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사 3:14, 15). 이를 보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어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불의하게 쌓은 재물들을 모조리 빼앗기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빈털털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원수들이 싹고 갔던 것들을 모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므로 그것들을 나누어 가지는 날이 왔습니다.

(4) 자유(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앗수르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체적과 막대기 같은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 처치해 버리셨습니다. 무겁게 매었던 멍에가 벗겨져 나가고 체적과 막대기가 꺾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손댈 자가 없는 자유가 왔습니다.

3.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까(6절)

(1) 한 아기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기쁨으로 믿고 영접한 하면 이와 같은 네 가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열심(사 9:7)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욕심을 부리고 피차에 싸우던 행동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자손에게 창성하는 복이 오고, 너희의 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잘되어 생활이 윤택해지고, 너희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모두 꺾어 버리고 너희에게 손댈 자가 없는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인간을 위해 보내 주신 한 아기를 영접할 때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영적인 고아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수속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고아였습니다. 장관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지식이 많은 박사이거나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했으므로 영적 고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수속이 끝나서 지옥으로 몰고 가는 악마의 쇠사슬이 십자가 밑에서 끊어지고 하늘나라 백성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영적으로 송장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몸은 살았어도 그 영혼은 썩은 냄새를 피우는 송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에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고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면 악마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 하늘나라 시민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2) 예수님의 별명이 어떠합니까

그분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신구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4장에는 ‘길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별명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109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상한 이름 몇이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①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란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여 인간으로는 가히 해석할 수 없는 분

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요 1:30) 고 했습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해석하지 못할 신기하고 오묘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 또한 오묘합니다. 가나 혼인집에 예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명하여 “저들 항아리마다 물을 떠다 채우라” 그래서 물을 떠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갔다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기묘자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② 예수님은 ‘모사’입니다.

‘모사’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누가 이것을 계획하시고 설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과 설계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③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이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권세로 승리하시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고 반대할 자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많으셔서 악마를 이기셨고, 능력이 많으셔서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권세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 오셨습니다. ■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PASSOVER LAMB

(Exodus 12:1-11)

The central idea between the first Passover Lamb and the last Passover Lamb is an important concept that Christians need to fully appreciate. The Bible traces the start of Passover to the Exodus. "Now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in the land of Egypt" is the opening sentence to the institution of the first Passover (Ex. 12:1). We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ese words because they offer the specific reasons as to who, whom and where this information is coming from and going to. Who is talking? The Lord. To whom is He speaking? Usually the Lord spoke only to Moses, here we find Him speaking to Moses and Aaron. Where is this conversation taking place? In the land of Egypt.

The critical climax comes when God tells Moses and Aaron, "This month shall be the beginning of months for you; it is to be the first month of the year to you" (Ex. 12:2). He mentions this specific time as the start of His blessing. God had blessed Abraham some four hundred and thirty-years (430) prior and now was the time He was going to fulfill that blessing and make Israel into a nation. Those many years between Abraham's blessing and Israel's blessing were preparatory. This specific time was to be the start of God's nation.

"Speak to all the congregation of Israel, saying, 'On the tenth of this month they are each one to take a lamb for themselves, according to their fathers' households, a lamb for each household' (Ex. 12:3). The specific audience to receive this all important message was to be the entire population of Israel. The instructions for each family to have the right number of lambs is made clear. In Egypt and in the Jewish culture shepherding was viewed as a blue-collar job. Human eyes saw lambs as unimportant. Here we see that God's eyes look upon a lamb as very important!

God specifically directed the Israelites on how much lamb, what kind of lamb, when and how to kill the lamb and when to eat the lamb. On top of all that, He directed them on where to put the lamb's blood, "Moreover, they shall take some of the blood and put it on the two doorposts and on the lintel of the houses in which they eat it" (Ex. 12:7). The Israelites were to eat the lamb inside a house that was covered with lamb's blood on the top and sides of its entrance door.

The lamb's blood was an all important element because, "The blood sha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liv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no plague will befall you to destroy you when I strike the land of Egypt" (Ex. 12:13). The strongest country in the world at that time in history was to be destroyed. The firstborn of all Egypt died and was made powerless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towards God. This verse shows three distinct elements: (1) the power of the lamb's blood (God's forgiveness); (2) the pass over of all homes with the blood (God's grace); and (3) no plague would come about to destroy any home with the blood (God's mercy).

This historic event of the Passover lamb was the beginning of the Jewish nation. Their people had suffered under slavery for 430 years until that very moment of that very day in which God passed over their lamb's blood painted homes to begin His plan for His people. "Now this day will be a memorial to you, and you shall celebrate it as a feast to the Lord; throughout your generations you are to celebrate it as a permanent ordinance" (Ex. 12:14). The essence of the lamb's blood becomes a victorious celebration in honor of God.

The utter significance of the lamb's blood is again mentioned, "For the Lord will pass through to smite the Egyptians; and when He sees the blood on the lintel and on the two doorposts, the Lord will pass over the door and will not allow the destroyer to come in to your houses to smite you" (Ex. 12:23). The strong emphasis on the power of the lamb's blood is made known. Only the lamb's blood provided protection. Without it death was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1-11)

첫 번째 유월절 양과 마지막 유월절 양의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은 유월절의 시초를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출 12:1). 우리는 이 구절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보통 주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나 여기에서 우리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가 축복의 절정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 12:2). 주님께서 이 특정한 때를 주의 축복의 시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 430년 전에 축복하셨고 이제는 그 축복을 실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축복 사이에 놓인 긴 시간은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출 12:3).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구체적인 청중은 이스라엘의 전 회중이었습니다. 각 가족의 식구를 위하여 양을 취하라는 지시가 정확하게 내려졌습니다. 애굽과 유대인의 문화에서 양을 치는 것은 노동자의 직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인간의 눈은 양들을 중요하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양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얼마나, 어떠한 양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이고 언제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는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출 12:7).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가 문설주 위와 좌우에 발라진 집 안에서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양의 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출 12:13)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가 멸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전 애굽의 장자가 죽었고 애굽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한 고로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세 가지의 독특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양의 피는 하나님의 용서를 뜻하고 둘째, 양의 피가 발라진 모든 집들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셋째, 피가 발라진 어느 집에도 재앙이 닥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을 통한 역사적 사건은 유대 국가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 위로 지나가신 그날 바로 그 시간까지 430년 동안 노예생활의 고통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출 12:14). 어린 양의 피의 본질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승리로운 의식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다시 언급되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출 12:23)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 대하여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보호를 보장하였고 피가 없이는 죽음이 불가피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성찬식을 유월절 음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고전 11:24).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inevitable.

In the New Testament Paul mentions the Lord's Supper as a Passover meal,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1 Cor. 11:24).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1 Cor. 11:25). Here we find Jesus presenting Himself as the Passover Lamb. It is the exact imagery presented in Exodus 12:14. The idea of remembrance and permanent ordinance connect.

The gospel of Matthew clearly spells out Jesus' purpose,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Mt. 26:26). Several verses later Jesus says,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s" (Mt. 26:28). Before His death, Jesus explained to His disciples the importance of His body and blood. We eat His body in order to receive eternal life. We drink His blood to forgive our sins.

Jesus is the Lamb of God. Our observance of the Lord's Supper is quite similar to the Israelites observance of Passover. Just like the Israelites of old had to eat the lamb and use its blood in order not to receive punishment, so it is that we Christians must now have Christ in order not to receive God's punishment. We celebrate the Lord's supper in the same manner that the Israelites celebrated Passover. The difference is that in the Old Testament the Israelites had only a real image of the Passover Lamb; whereas in the New Testament all Christians receive the real thing.

Christ is "our Passover Lamb" (1 Cor. 5:7). The Old Testament lamb was temporary, the New Testament lamb is eternal. Whoever partook of the lambs' body and blood in the Old Testament received no punishment. Whoever partakes in the Lamb of God in the New Testament also receives no punishment. The difference is that in the Old Testament they had to sprinkle the lamb's blood around their entrance doors and follow strict rules on how to specifically eat the lamb. In the New Testament we only have to have faith in Christ. Only His precious blood and victory over death provide protection.

Jesus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necessary for death to pass us by. John's Gospel points out that none of Jesus' bones were broken in his crucifixion in allusion to the requirement that none of the Passover lamb's bones be broken (John 19:33-37; Ex. 12:46). He also tells us that the first time John the Baptist saw Jesus he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ohn 1:29). He also says, "Then I looked, and I heard the voice of many angels around the throne and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and the number of them was myriads of myriads, and thousands of thousands, saying with a loud voice,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 and wisdom and might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And every created thing which is in heaven and on the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on the sea, and all things in them, I heard saying, 'To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be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Rev. 5:11-13).

Jesus' beloved disciple John really spells it out for us,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1 John 5:12). I wholeheartedly don't think it can get much plainer than this! Without Jesus, no one has life. Those of you who place value in the world's glittering gold - your money, your material possessions, your reputation, your fame, etc... are in deep and the Bible says really deep trouble. There's absolutely no value and worse still no chance of life in any of these things. However, anyone who places their value - their faith in Jesus as their Savior and Lord receives life.

Therefore, my friends, open your hearts to Jesus. Come to Jesus. He is the only way to the truth and to life! He is our Passover Lamb. God's only Son died on a cross once and for all so that we could avoid God's wrath and punishment against sin. Without Jesus there is no defense, no protection, and no chance for survival. There is not one human being on this planet who is without sin. The punishment of sin is death. No matter how good you think you are, you can never be good enough without Christ. The whole purpose of our creation is found in Him. Think about it!

The meaning of the Passover Lamb is the starting of God's nation. The Jewish people stop there. Christians understand the spiritual significance of that event. We see God's redemption in that event but also see its fulfillment in Christ. Jesus is the true and final lamb of God. His victory over all sin and His conquering of death was a one time event. God sacrificed His Son once and for all. He now holds the only key to life everlasting. All power has been given unto Him. We see His presence in the Old Testament and are able to experience His presence today through our faith in His worthiness. Death shall pass by all those who are covered by His blood - the blood of the Lamb of God. In Christ, we are protected by God and promised eternal life. Worthy is the Lamb who paid the price of death for all.

(고전 11:25).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타난 정확한 상징인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명령과 영원히 지키라는 명령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목적을 뚜렷하게 명시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마 26:26). 몇 구절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들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고 어린 양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모셔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모형이 되는 양을 받았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참된 주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고전 5:7)이십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일시적이었으나, 신약의 어린 양은 영원하십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의 몸과 피를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구약에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 주위에 바르고 어떻게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오직 주님의 귀중한 피와 주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뼈도 상함을 입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던져서 가리키는 것입니다(요 19:33-37; 출 12:46). 요한은 또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계 5:11-13)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휘황찬란한 금을 소중히 보는 분들이여 -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물질적 소유, 여러분의 평판과 명성 등은 성경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변호나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떠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선하다고 여길지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모든 목적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하나님에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작에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거기에 매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의 영적인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보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의 성취를 봅니다. 예수님은 참되시며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승리와 죽음에 대한 그분의 정복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한 번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그분의 임재를 보면서 주님의 가치를 믿음으로 보면서 오늘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실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무의식 중이라도 부르는 소리 **주여! 주여!**

조 문 찬
(목사, 5교구 지도)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간절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다. 나는 과거에 정말 주님을 생활 속에서 중심으로 의지하는 분을 만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한다.

꽤 오래 전의 일이다. 내가 신학교 1학년 때이니까 벌써 15년도 전의 일이다. 내가 처음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양산에 있는 감람산기도원에 들어갔었다. 거기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감람산기도원이 지금의 규모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집회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개척 교회의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분의 입에서는 강사가 설교를 할 때나 대표로 누가 기도를 할 때나 변함없이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흘러 나왔다. 그의 입은 항상, 그리고 변함없이 "주여!"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 입술의 고백이 세지 진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들려졌다. 처음에 너무 자주 "주여!" 소리가 나와서 이상한 생각도 들었지만 확실히 그의 고백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존경스러웠다. 어쩌면 저렇게 그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목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다른 분들은 모두 숙소로 돌아가고 그 목사님과 나만 남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잠자는 입술에서 여전히 몸을 뒤척일 때마다 "주여!" 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자면 서도 "주여! 주여!" 하는 중심이 너무나도 부러웠기 때문이다. 분명히 잠이 든 것이 틀림없는데 계속적으로 그의 입술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었다. 잠을 자지 않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잠든 사이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무의식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부럽기도 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중에 그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유명한 대학과 유학까지 다녀온 실력있는 분이였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 이유가 그의 힘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나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는 자나깨나 주님만 의지하는 목회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항상 은혜를 주셔서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의 입술에는 항상 "주여!" 하는 소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다. 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다짐하며 사역을 시작했다. 그후에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주님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교역자나 평신도나 다를 것이 없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동안은 주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 주신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 영 희
(새가족부 수료자)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닌 지가 한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조차 어색한 저에게 지난 9월 28일 2부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 참으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 같은 원수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서 그 아픈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난생 처음 느끼는 애절한 감동이 생겼습니다.

저는 용서받지 못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죄만 짓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전 아주 사치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고 사기치며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미니스커트 사고 키높이 구두 사고 가발이나 사며 화장품을 사서 화장이나 하고 향수냄새나 풍기며 각선미 자랑이나 하고 속눈썹 붙여서 얼굴 자랑하는 것이 제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더럽고 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배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것은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양전히 앉아 있다가 나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 예배드리다 말고 그만 눈물보가 터져서 울보가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집회가 시작되어 모인 사람들과 함께 찬송가 460장을 불렀는데 또다시 나는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다는 생각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신 목사님도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아파 어쩔 줄 모르고 비

틀거리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가신 예수님. 이 죄인을 위하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기에 험한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전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등성이에서는 예수님을 못박으려고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곳으로 가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언덕에 올라가시자 군병들이 사정없이 예수님을 잡아 누이고 십자가에 두 손과 발, 그리고 머리에 고통을 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마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면류관은 근사한 이름으로 치장하여 간사하게 여러 사람을 속였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저의 생활이 얼마나 나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미니스커트며, 가발, 비싼 화장품을 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죄 용서받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 참석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악된 모습은 모두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도 힘쓰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타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만난 나의 하나님

이 부 성
(집사, 영어교육부 부감)

저는 대대로 무속 신앙에 젖어 있던 불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철저히 세상 일에만 전력 투구하였던 이기적이고 야심에 찬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대기업에 스카우트되어 36세에 이사로 승진될 정도로 전금이 빨랐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의 불사신이 되어 완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욕망의 화신은 마음을 부추기어 또다른 대기업체의 임원으로 가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경영 스타일과 구조적 운용의 문제점으로 인해 고민하다가 그만 불면증으로 신체 리듬의 균형이 깨져 심한 위장 장애와 피부 질환 등 갖가지 질병으

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근 10개월간 병석에 시달리는 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모르고 패기만만하게 지내왔던 예전의 모습은 어둠으로 사라지고 가장 나약하고 쓸모없는, 내일의 희망도 없이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완전히 폐인이 될 거라는 사형과 같은 선언을 받은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매질이었습니다. 유명한 의사와 약을 다 써봤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해 가세는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의 집사람 친구가 찾아와 아무래도 너의 남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다며 강력하

게 전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허튼 소리냐고 거부하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상태였기에 그만 체념하고 그분의 인도대로 부축을 받으며 아내와 함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가 1981년 9월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매우 힘들었지만, 자를 위해 온 심신을 다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에 저의 완악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큰 평화를 맛보았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들어오니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저는 다시 예전보다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잡았고 건강도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세 자녀와 함께 우리 식구는 그야말로 고별료의 가정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자칭 우리 집을 '살롬하우스'라고 명명할 정도로 우리 가정엔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철저히 세상적이었던 제가 변화

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주님 사역을 위해서는 전력 투구하였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서리집사로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하다가 1986년 8월에 충현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좀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던 어리석은 마음으로 대교회인 이곳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심신 모두가 젊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은 머리가 허영계 서리가 내렸는데 저는 젊어보인다며 그 비결을 물으면 "주님을 영접해라" 그것이 비결이라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취재수첩

고등부 중창 페스티벌 찬양으로 하나되는 시간

고등부 중창페스티벌이 드디어 지난 10월 26일 갈릴리홀에서 시작되었다. 자칫 방황하기 쉬운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중창페스티벌은 주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날인 26일에는 교사들이 동참한 가운데 네 팀이 나와 찬양을 부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특히 고3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학부 선배들이 찬조 출연하였다. 이 페스티벌은 11월 한달 동안 계속된다.



유아, 유년, 소년부 초청전도집회 가져

지난 10월 26일 주일에는 유아부, 유년부, 소년부에서 초청전도집회를 가졌다. 이들 부서에서는 그 동안 등록은 되어 있지만 출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며,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초청하였다.

유아부(사진 상)에서는 탁아부의 협조를 얻어 주일에 탁아부에 맡겨지는 어린이들 가운데 유아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들을 유아부에 등록케 하여 유아부 연령에 맞는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유년부(사진 하)에서는 새 친구들을 전도한 어린이들에게 인도상을 주었으며 인형극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

면서 새로 나온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한편 소년부에서도 찬양을 통해 새 친구들의 마음문을 열게 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소망부 찬송가경연대회

소망부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주일 찬송가경연대회를 실시하였다. 찬양반으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찬양하자"는 지도 이종대 목사의 말씀 후 과별로 진행하였다.

회원들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등의 찬송가



를 암송해 불렀는데, 신앙 연륜에서 배어나온 찬양을 부름으로써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다른 은혜를 맛보게 하였다.

중등부 연합 시와 찬양의 밤 11월 8일 오후 3시 갈릴리홀

중등1, 2, 3부가 연합으로 11월 8일(토)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시와 찬양의 밤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시와 찬양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특히 2부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시 낭송, 독창, 중창, 다함께 노래를, 성극, 합창 및 중등부 연합오케스트라의 연주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하여 학부모와 새 친구들을 초청하여 중등부를 소개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이 있어야겠다.

고3학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11월 3일부터 매일 베다니홀에서

그동안 매주 수요일에 실시되어 오던 고3학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11월 3일(내일)부터 매일 실시된다.

수능시험이 11월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고등부 지도 이국병 목사의 인도로 베다니홀에서 진행되는 이 기도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요한전도회연합회 30대 부부 위한 특강 11월 12일 2부예배 후 나사렛홀

요한전도회연합회에서는 30대 부부와 결혼을 앞둔 남녀 성도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2일(수) 2부예배 후 나사렛홀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오손도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주제로 채규만 교수(성신여대 심리학과)를 강사로 진행한다.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도 하는 요즘 우리 교회 30대 부부들은 특별히 마련된 이 특강을 통하여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한연

합회에서는 많은 부부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베드로전도회연합회 총회 11월 8일 오후 5시

베드로전도회 연합회는 금년도 사업들을 결산하고 내년도 준비하는 총회를 오는 8일(토) 오후 5시 교회 앞 음식점인 '박대감집'에서 갖는다.

이집트 단기선교 단원 모집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 충현'의 비전을 세워가는 일환으로 진행될 이번 단기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 일정: 97년 12월 22-30일
- 인원: 10명 내외
- 사역: 성경학교, 찬양집회, 초청전도집회, 선교세미나, 성탄축하음악예배, 선교지 탐방, 카이로 인근 성지 탐방
- 대상자: 성경공부, 찬양, 율동을 지도할 수 있는 선교 헌신자
- 신청: 10월 13일(토)까지
- 문의: 선교위원회(교한 357) (사진/이윤구 기자)

직원 모집

1. 자격
 - 1) 25세 전후의 세레받은 남자
 - 2) PC 사용이 가능한 자
2. 근무직
 - 인쇄실 0명
3.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 주민등록등본
 -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기타 서류는 채용후 제출)
4. 제출처
 - 충현교회 사무국
 -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3 ☎ 552-8200 교한 402)

제3회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전도모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합니다

영어예배(교육)부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국내에 있는 외롭고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예배 및 친교, 의료 서비스, 점심식사, 선물 증정 등을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위에 초청할 만한 외국인들이 있으면 이번 행사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깨끗이 손질한 겨울옷이나 생활에 요긴한 생활필수품(비누, 치약, 일상용품, 각종 식용통조림류, 이불, 가방 등)들을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11월 9일(주일)까지 영어예배(교육)부(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11월 16일(주일) 오전 9시~오후 2시
- 장소: 복지관 지하1층 가나홀
- 문의: 이승림 목사(552-8200), 이부성 집사(790-1123), 이정협 선생(442-2659)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we'll be having a Thanksgiving Celebration party on the 16th of Nov., from 09:00 to 14:00 at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B1.

Please kindly help invite internationals in Korea around you. This will be a special event of sharing with the internationals. Please bring some gifts items(clothes, necessities of life, etc.) to the church that we can share during the party. contact to : Rev. Paul S. Lee(Tel. 552-8200).

충현게시판

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고등부(부장 임무천 장로, 자도 이국병 목사)에서는 우리 교회 교사양성부를 수료한 분으로서, 고등부 학생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지도해 주실 20여분의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된 교사들은 1998년도부터 고등부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고등부에서 봉사하시는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입니다. 이 시간들은 교사공부와 교사회의, 고등부 자체집회와 5부예배, 분반공부 등으로 진행됩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교한 292번(고등부 교사실)이나 이국병 목사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세우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일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성도를 기다립니다. 9-12인승 승합차를 소유하신 분으로서 우리 교회 '사랑부(정신장애 아 루서)'의 지체들 중 장애동 지역에 사는 이들을 교회학교에 등·하교시켜주실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이 지체들의 등교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이고 하교시간은 낮 12시 30분입니다. '함께 세우는 예수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섬겨 주실 분은 주일에 교육관 1층에 있는 사랑부 교사실(교육관 105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성도들께서는 연약한 지체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